

종교교육학연구 제48권. pp.145-169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7. 30.

육바라밀에 기초한 동화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

유 지 현(고진) · 김 혜 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불교의 신행덕목인 육바라밀에 기초한 동화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통제집단을 둔 사전-사후 실험 설계 연구이고, 연구 대상은 경상북도 G시 D대학 부속유치원 만 4세반 2학급의 유아 26명이었다. 실험집단의 활동은 육바라밀에 기초한 동화 이야기나누기 활동이었으며, 통제집단의 활동은 일반적인 동화 이야기나누기 활동이었다. 실험처치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도덕적 판단력 검사와 자기조절력 검사가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이 행해졌고, 독립표본 t-test, 대응표본 t-test가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육바라밀에 기초한 동화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자기조절력을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붓다의 가르침이 유아기 아동들을 위한 교육적 자원으로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고, 교육현장에서 좀 더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주제어: 육바라밀, 동화, 이야기 나누기 활동, 도덕적 판단력, 자기조절력

I. 문제 제기

최근 21세기의 우리 사회는 지식 정보화 시대, 다문화 사회, 글로벌 사회라는 용어들로 요약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특성은 이미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 중에

* 위 논문은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년도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는 부정적인 변화도 존재하는데,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가치관 자체가 변화하는 등의 질적인 전환 양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들이다. 즉 인간을 기능적, 수단적으로 다루는 풍조로 인한 변화이다. 무조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사회 풍조는 이미 여러 가지 심각한 병리적 현상을 파생시키고 있고, 교육계 또한 변질시키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는 아이들이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면서 성적 지상주의, 승자만이 인정받는 문화가 학교에서도 만연되고 있다. 따라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쉽게 감정과 힘을 앞세우거나 경쟁에서 소외되어 자신감을 잃고 위축된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성 발달이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인성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의 수준이 낮아진다¹⁾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좀 더 어린 아동들 사이에서도 나타나 집단 따돌림, 괴롭힘, 구타 같은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초등학교에서부터 빈발하고 있다. 근래에는 여러 가지 행동문제와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유아들의 비율이 학동기 아동들의 비율과 비슷하다²⁾고까지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기 행동문제는 어려서부터 아동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익혀옴으로써,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한 인성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³⁾ 인성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심리·정서적인 품성이다. 고대 철학자 로크는 인성이란 자신의 욕구와 정서를 억제하고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⁴⁾ 동양의 성리학에서는 인성을 사실로도 그리고 규범으로도 보았다.⁵⁾ 이처럼 인성은 인간 개개인의 특성으로 비추어지지만 동서양 모두 개인의 사회적 특성으로도 이해함을 알 수 있다.⁶⁾ 따라서 유아기부터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공공질서를 지키는 도덕성을 갖추는 인성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근래 대중포교의 기회가 급증함에 주요 종교계에서는 벌써부터 고유의 종교사상에 기초한 유아기 인성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불교계에서도 유아기 교육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립하여 불교사상에 기초한 교육활동이나 불교행사를 통한 불교문화 체험을 제공하여 왔다.⁷⁾ 동시에 불교가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최고의 자원이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1) 교육부, 『인성지수 개발 연구』, 교육부 미간행, 2013, p.5.

2) Olson, S. L. & Hoza, R., "Preschool Developmental Antecedents of Conduct Problems in Children Beginning School",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6, 1993, pp. 644-660.

3) 김은설, 최은영, 조아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2013).

4) 박찬옥, 「유아교육에서 인성 개발 방안」(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0). 581-588쪽.

5) 김영옥, 장명림, 유희정, 「유아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열린유아교육학회, 2009), 297-324쪽.

6) 조복희, 곽혜경, 김혜순, 연미희, 이영환, 장혜자, 『유아발달』 (서울: 교육과학사, 2014).

7) 김혜순,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방향 탐색」, 『한국불교상당학회지』 5(1) (경주: 한국불교상당학회, 2013), 122쪽.

보고임을 주장하는 연구들도 계속되어져왔다. 특히 마음 챙김과 같은 종교적 수행이 개개인의 심리학적 부적응을 감소시킨다⁸⁾는 증거가 보고되고 있고, 선 수행에서 강조되는 것처럼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기술들이 교사의 교수능력이나 유아의 심성을 계발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⁹⁾도 불교가 유아기 아동들을 위한 교육적 자원으로 좀 더 활용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불교의 핵심 사상이나 위빠사나와 같은 수행방법이 아직 인지적으로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유아기 아동들에게 잘 전달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동들의 발달 단계적 특성에 따라 불교의 사상을 선별하고, 이를 적절한 교육 방법으로 아동들에게 전하려는 교육적 노력이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이나 사찰 중심의 어린이 학교 등에서 계속되어져 왔다. 이들 기관에서는 주로 불교적 신행 덕목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그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유도하는 교육활동을 실천하거나 불교행사를 통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여왔다.¹⁰⁾ 그러나 정부가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을 발족시키면서까지 현 시대 어린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종교계 교육현장에는 실천 가능한 교육활동을 좀 더 개발하고 이를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교 육바라밀과 관련되는 주제를 담고 있는 동화를 선정하여 이를 활용한 이야기 활동을 진행한 후, 이러한 활동이 유아들의 도덕적 판단력과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불교의 범교육적 가치를 유아교육 분야에서 실증함으로써 불교유아교육이라는 응용학문의 발전과 유아들의 인성 함양을 지원하고자 하는 불교계 교육현장의 노력에도 기여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로서 본고에서는 불교 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는 일단 지양하고, 우선 유아기 불교교육과 육바라밀의 관계, 동화 이야기 나누기 활동 그리고 유아기 발달과제로서 도덕적 판단력과 자기조절력의 발달적 의의 등을 탐색할 것이다. 이후, 실험연구 설계로서의 본 연구방법과 주요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펼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목적은 구체화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8) Ostafin, B. D. Chawla, N., Bowen, S., Dillworth, T. M., Witkiewitz, K., “Intensive Mindfulness Training and the Reduction of Psychological Distress: A Preliminary Study”,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13(3), 2006, 191-197.

9) Kim, H. S., “Korean Seon Buddhism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24, 2015, 23-42.

Tremmel, R., “Zen and the Art of Reflective Practice in Teacher Education”, *Harvard Educational Review*, 63(1), 1993, 434-58.

10) 김혜순, 앞의 글 122-123쪽.

황옥자, 「유아기 심성발달에 관한 불교의 역할 및 방향모색」, 『종교교육학연구』, 13,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305쪽.

〈연구문제〉

1. 육바라밀에 기초한 동화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2. 육바라밀에 기초한 동화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유아기 불교교육과 육바라밀

종교성 연구¹¹⁾에 의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는 보편적 인간심리가 있다. 이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 교육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불성의 발현에서 찾는다. 본래불인 자기 성품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적극적 의지와 실감적인 신행이 강조된다.¹²⁾ 우리 시대 유아를 위한 불교교육은 교육현장에서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맞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으로 불교의 핵심 사상을 전하려는 교육적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를 위한 불교교육은 교육의 내용이 잘 선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아교육의 일반적인 교육적 구성요소와 불교사상이 조화를 이루어 유아의 삶 속에 흡수되도록 계획되는 것이 필요하다¹³⁾고 강조되어진다. 즉 교육의 성과는 효율적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불교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의 생활환경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적 풍토이며 역사적 유산이다. 전승된 불교는 연기사상, 무아사상, 윤회사상 등을 통하여 인간 존재의 깨우침이 인류의 행복과 복지의 원천임을 가르쳐 왔다.¹⁴⁾ 이와 같은 불교의 핵심 사상 중 육바라밀은 바로 이 궁극적인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기 위한 여섯 가지 수행 방법이다.¹⁵⁾ 대승

11) 박범석, 「교육의 종교성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유상덕, 「영성의 보고로부터 배우는 근대교육의 성찰」 『종교성,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학지사, 2007).

Cohen, A. B., Hall, D. E., Koenig, H.G., & Meador, K. G., "Social Versus Individual Motivation: Implications for Normative Definition of Religious Orient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9(1), 2005, 48-61.

12) 김혜순, 「종교성과 신행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종교교육학연구』 제 29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102-103쪽.

13) 권대원, 『유아교육과정』 (서울: 양서원, 2008).

14) 김혜순, 「종교성과 신행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종교교육학연구』 제 29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83-107쪽.

15)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교재편찬위원회, 『불교사상의 이해』 경주: 불교시대사, 1997, 323쪽.

경전에서는 보살의 실천 덕목으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제시하며, 이는 자리(自利)와 이타(利他)를 포함한다. 그런데 이러한 여섯 가지 덕목과 육바라밀은 다르다. 예를 들면 보시와 보시바라밀은 다르다고 본다. 주었다는 상을 내지 않는, 즉 모습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¹⁶⁾로 떠나지 않는 베품이 되어야만 보시 바라밀이다¹⁶⁾라고 한다. 다시 말해 보시를 행하면서도 보시라는 선행에 집착하지 않고 공덕의 대가도 바라지 않는 무주상(無住相)의 보시를 말한다.

바라밀(波羅密, pāramitā)이란 피안(彼岸)에 이른다(到彼岸)는 뜻으로 ‘도(度)’라고도 번역한다. 바라밀 또는 바라밀다는 산스크리트어 ‘파라미타’ (pāramitā)를 음역(音譯)한 것으로 완성 · 피안(彼岸) 등을 의미한다. 즉 미망과 생사의 차안(此岸: 이 언덕)에서 해탈과 열반의 피안(彼岸: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이며, 이는 무한한 과정적 수행이다. 이러한 이유로 바라밀은 도(度)가 되며, 현실의 차안(此岸)에서 이상적인 상태인 피안(彼岸)으로 사람들을 넘기기 위한 덕목, 수행 또는 실천이라는 의미가 된다. 육바라밀은 원시불교에서 말하는 계(戒) · 정(定) · 혜(慧)의 삼학(三學)과 대승불교의 수행목표인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이념에 근거하여 팔정도(八正道)를 비롯한 모든 수행법들을 대승불교의 차원에서 체계화한 것이다. 그리고 대승불교에서 육바라밀은 곧 대승(大乘), 즉 보살의 큰 수레로 표현될 만큼 중요시되었다.

2. 동화 이야기 나누기 활동

유아들은 신체, 정서, 언어발달에 있어 미숙하고 어휘도 한정되어 있으며 사고 또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유아의 사회, 인지능력발달, 지적발달, 인성과 신체의 발달을 위해서는 많은 교육활동과 경험이 필요하다.¹⁷⁾ 이러한 측면에서 유아들에게 동화는 다양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 동화는 유아의 정서를 풍부하게 하고 상상력을 통해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며 인생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준다. 동화를 통하여 단편적이고 분리된 지식이 아니라 통합적인 지식을 획득하며 실생활에 바탕을 둔 자연적인 사실들을 이해하게 된다.

유아는 동화를 통하여 문자를 익힐 수 있으며 언어와 문자생활을 통해 유년기의 학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적발달의 측면에서도 동화 속의 이상 세계와 접촉함으로써 상상력을 통해 지적 능력의 싹을 키운다. 사회 교육적 측면에서는 올바른 생활태도와 습관, 협동심, 자주성, 책임감, 도덕성의 기초를 배우고 익힐 수 있으며, 정서적 측면에서는 풍부한 정서적 체험과 상상력을 키워 인간 형성기의 심성을 순화시킨다. 창조적 측면에서는 정서 능력과 사고력의 발달로 두뇌의 계발과 창조력을 키울 수 있으며, 심미적 체험을 통

16) 김성철, 『김성철 교수의 불교하는 사람은.....』(서울: 불교시대사, 2012). 70쪽.

17) 박상희, 『그림책 중심의 유아 독서 교육의 실제』. (서울: 태영출판사, 2008)

해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한편 유아교육기관의 하루 일과에는 교사와 유아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생각, 경험, 느낌 등을 이야기하는 ‘이야기 나누기 활동’이 있다. 이야기나누기 활동은 언어활동이 중심이 되는 활동으로서 유아들이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학습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토의,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야기 나누기 활동은 교사 주도적으로 학습 내용을 가르치기보다 대화를 통하여 유아의 생각을 끌어내고 교사와 유아의 상호 활동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태로 전개될 때 보다 효과적이다.¹⁸⁾

동화 이야기 나누기 활동은 유아들에게 교육적이며 발달에 적합한 동화를 내용이나 형식에 맞게 적절한 전달방법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유아들의 이해력, 언어발달, 논리적 사고, 주의력, 추리력, 창의적인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다.¹⁹⁾ 유아를 위한 동화 교수 매체는 동화의 본래 목적과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전달해야 한다. 동화의 내용이나 장르에 따라 구연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림이나 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것은 동화를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 그 효과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유아들에게 동화를 들려주기 위한 방법으로는 동극, 구연동화, 그림동화, 텔레비전 동화, 음판 및 자석을 이용한 동화, 미디어를 활용한 동화 등이 있다.

3. 유아기 도덕적 판단력과 자기조절력의 발달

Piaget나 Kohlberg와 같은 대표적인 인지발달론자의 견해에 의하면 도덕이란 감정이나 학습된 연상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도덕적 문제에 관해 판단하는 방식에 따라 개념화된 것이다.²⁰⁾ 따라서 도덕성의 주된 요소를 도덕적 판단력으로 보는데, 도덕적 판단력은 도덕적 상황에 직면하여 판단 또는 추론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도덕성은 개인이 사회적 규범을 어떻게 개념화하느냐 하는 과정에서 발달되며, 이 규범을 내면화하여 규칙에 따라 판단하는 능력이 도덕성의 본질이다.²¹⁾ 따라서 유아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새로운 사고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나 불균형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이전의 사고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진 새로운 결과를 성취하는 것이 도덕적 판단력의 발달 과정이다.

18) 김순란, 이종한, 「교사교육 후에 실시한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미음이론 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Vol. 63, 2010, 157-175쪽.

19) 고문숙 외, 『누리과정에 기초한 유아교과교육론』(창지사, 2013), 294-295쪽.

20) 장택수, 「가치갈등과 시뮬레이션 게임 교수 방법이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21) Piaget, J.,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1975.

Kohlberg²²⁾는 Piaget의 도덕성 발달 개념을 계승하여 더욱 포괄적, 윤리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인지적 요인 이외에도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면서 좀 더 진전된 도덕성 발달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즉 유아기 도덕성 발달은 사회적 상호작용, 즉 외적인 요인이 유아의 도덕적 사고를 유도하여 보다 높은 단계로의 발달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도덕적 판단력의 발달은 동일한 단계로 나타나며, 이 발달 단계는 한 개인이 세계를 보는 인지 구조를 나타낸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도덕적 판단력의 발달은 개인 내부의 인지 구조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점점 더 안정된 인지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된다.²³⁾

한편, 자기조절력에 대한 개념은 여러 관점에서 조망되어져 왔다. 크게 인지조절의 측면과 정서조절의 측면에서 개념화되어 왔다. 인지조절의 측면의 연구들²⁴⁾에 의하면, 자기조절력이란 주어진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조정하고 평가하는 인지적 조작능력이다. 반면 정서조절측면의 연구들²⁵⁾에 의하면, 자기조절이란 정서적인 반응들을 촉진 또는 억제하는 정서성(emotionality)을 조정하는 과정이며, 부정적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 국내 연구자 양옥승²⁶⁾은 유아기 자기조절력이란 외적 조절자의 존재 하에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타인조절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성인의 지시나 요구 없이 유아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상황적 요구에 맞추어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조절력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자기조절력이 높은 유아는 사회적으로 보다 적응적이며,²⁷⁾ 성공적인 학습과 사회화를 예견해 준다.²⁸⁾ 반면 자기조절력이 낮은 유아는

22) Kohlberg, L., *Development of Moral Character and Moral Ideology;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I, ed, M. L. Hoffman and L. W. Hoffman. N.Y : Rusell Sage Foundation, 1964.

23) 김재철, 「지적 호기심에 따라 법률적 탐구수업과 설명식 수업이 학업 성취 및 도덕적 판단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24) Bodrova, A. L., & Leong, D. G., *Tool of mind: A Vygotskian Approach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96.

Bronson, M. B., *Self-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Nature and Nurture*. N.Y : The Guilford Press, 2000.

Zimmerman, C. R., "Self-Regulation involves more than Meta-Cogni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Education Psychologist*, 81, 1995, 329-339.

25) Lengua, L. J., "The Contribution of Emotionality and Self-Regulation to the Understanding of Children's Response to Multiple Risk", *Child Development*, 73(1), 2002, 144-161.

Sethi, E. K., Mischel, W., Aber, J. L., Shoda, Y., & Rodriguez, M. L., "The Role of Strategic Attention Deployment in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Predicting Preschoolers' Delay of Gratification from Mother Toddler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6(6), 2000, 767-777.

26) 양옥승, 『유아 때부터 시작하는 자유선택교육』 (서울: 학지사, 2004), 62쪽.

27) Eisenberg, N., Guthrie, I. K., Fabes, R. A., Reiser, M., Murphy, B. C., Holgren, R., Maszk, P. & Losoya, S.,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Resiliency and Competent Social Functioning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8(2), 1997, 295-311.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노는 경향²⁹⁾이 있으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³⁰⁾ 더욱이 자기조절력이 유아기에 급속히 발달하기 시작한다³¹⁾고 보고됨으로써, 이제 유아기 자기조절력은 핵심적이며 중요한 인지-발달의 증거 중의 하나로서 이 시기에 반드시 개발되어야 하는 발달 과제로 폭 넓게 인식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G시에 소재하고 있는 D대학 부속유치원 만 4세반 유아 2학급 2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표 1〉 연구 대상

집단	연구대상		
	남	여	계
실험집단	7	6	13
통제집단	7	6	13
계	14	12	26

28) Brownell, C. A., & Kopp, C. B. (Ed). *Self-Regulation,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the Toddler Years* (pp. 261-344).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07.

Cameron, C. E., & Morrison, F. J. "Teacher Active Orienting predicts Preschoolers' Academic and Self-regulatory Skill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2(4), 2011. 620-648.

29) 백상수와 황윤세, 「유아 영재성 관련 변인의 구조분석 또래유능성, 자기조절력, 놀이특성」 『한국영유아보육학』 63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0), 203-225쪽.

Smith, D. R., Raver, C. C., & Hayes, T., "Preliminary Construct and Concurrent Validity of the Preschool Self-Regulation Assessment (PSRA) for Field-Based Research",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2(2), 2007, 173-187.

30) 이윤정·박성현, 「게슈탈트 예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과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게슈탈트치료연구』 Vol. 1(2) (서울: 한국게슈탈트치료학회, 2011), 1-29쪽.

Eisenberg, N., Spinard, T. L. & Morris, A. S., "Regulation, Resiliency, and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Self and identity*, 1. 2002, 121-128.

Wulfert, E., Block, J. A., Santa Ana, E., Rodriguez, M. L., & Coleman, M. "Delay of Gratification: Impulsive choices and problem behaviors in early and late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70, 2002, 533-552.

31) 양옥승, 「유아 자기조절의 의미: 두뇌발달의 관점」 『유아교육연구』31(6), (유아교육학회, 2011), 480쪽.

실험집단은 육바라밀에 기초한 동화 이야기나누기 활동을 실시하는 집단이며 통제집단은 일반적인 동화 이야기나누기 활동을 실시하는 집단이다.

2. 실험설계

본 연구는 육바라밀에 기초하여 동화를 활용한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및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통제집단이 있는 사전-사후 실험 설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실험 설계

집단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 ₁	× ₁	O ₃
통제집단	O ₂	—	O ₄

O₁, O₂ : 사전검사 (도덕적 판단력검사, 자기조절력 검사)

×₁ : 실험처치 (육바라밀에 기초한 동화 이야기나누기 활동)

O₃, O₄ : 사후검사 (도덕적 판단력검사, 자기조절력 검사)

3. 측정 도구

1)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검사

본 연구에서는 Hebble³²⁾이 최초 개발하고 이기우³³⁾가 번안한 것을 사용한 송승진³⁴⁾의 ‘도덕적 판단력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과실, 흠치기, 거짓말의 세 가지 도덕성 영역에 따라 4가지 도덕성 척도(좋은 의도-적은 손실, 좋은 의도-많은 손실, 나쁜 의도-적은 손실, 나쁜 의도-많은 손실)에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질문문항은 유아의 도덕적 판단을 요구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으며, 문항 수는 도덕성의 세 가지 영역(과실, 흠치기, 거짓말)별로 각각 4가지 도덕성 척도문항인 총 1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검사의 내용별 문항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도덕적 판단력 검사는 1 : 1 개별 면접방법으로 검사자가 유아와 마주 앉아서 질문에 대한 유아가 반응을 체크지에 표기한다. 유아는 체크지 그림을 보면서 얼마나 나쁜지를 ‘나쁘지 않다’, ‘조금 나쁘다’, ‘많이 나쁘다’, ‘아주 많이 나쁘다’ 가운데 선택하도록 한

32) Hebble, P. W., “The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s Judgment of Intent”, *Child Development*, 42(6), 1971, 1203-1215.

33) 이기우, 「자기중심적-타인중심적 사고와 도덕적 판단력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34) 송승진, 「전래동화의 도덕적 갈등상황에 대한 토의활동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다. 각 척도는 ‘나쁘지 않다’ 1점에서부터 ‘아주 많이 나쁘다’의 4점까지 네 단계로 평정되며, 이는 의도성 지수로 환산되어 도덕적 판단력이 측정된다.

〈표 3〉 도덕적 판단력 검사의 내용 문항

도덕적 판단력 하위영역	좋은 의도		나쁜 의도		문 항 수
	적은손실(GL)	많은손실(GH)	적은손실(BL)	많은손실(BH)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과실	7	1	4	10	4
훔치기	2	11	8	5	4
거짓말	6	9	3	12	4
문항 수	3	3	3	3	12

Hebble(1971)이 고안한 의도성 판단 지수 산출 공식은 아래와 같다.

$$IJQ = \frac{\Sigma BL + \Sigma BH}{\Sigma GL + \Sigma GH} \times \frac{\Sigma BL + \Sigma GL}{\Sigma BH + \Sigma GH}$$

※ IJQ (Intention Judgement Quotient) : 의도성 판단 지수

GL (Good Motive - Low Result) : 좋은 의도 - 적은 손실

GH (Good Motive - High Result) : 좋은 의도 - 많은 손실

BL (Bad Motive - Low Result) : 나쁜 의도 - 적은 손실

BH (Bad Motive - High Result) : 나쁜 의도 - 많은 손실

이 공식에 의하면 유아가 행동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의도와 결과의 비중이 똑같다면 그 지수의 값은 1이 된다. 그러나 의도를 더 많이 고려하면 값은 1보다 커지고 결과에 의해 판단하면 그 값이 1보다 작아진다. 따라서 점수는 높아지게 되면 도덕적 판단력이 높다고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는 Spearman -Brown 교정공식에 의해 산출된 기우반분 신뢰도가 .67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자기조절력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조절능력 검사 도구는 Kendall과 Wilcox³⁵⁾가 제작한 자기조절 능력 검사(Self-Control Rating Scale: SCRS)를 사용한 이세원³⁶⁾의 도구이다. 이 도구는 30

35) Kendall, P. C. & Wilcox, L. E., "Self-Control in Children : Developmental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Psychology*, 4(4). 1979, 1020-1029.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10개의 문항은 유아 자신의 의도나 계획에 따라 행동하고 계획이나 전략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통제력’을 기술한 것이며, 다른 10개의 문항은 유아가 행동을 유보하고 만족을 지연시키는 ‘충동성 감소’를 기술한 것이고, 나머지 10개 문항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자극들을 분류하며 선별하는 작용으로서 여러 자극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억제하는 능력인 ‘주의집중’을 기술한 것이다. 자기조절력 검사의 문항구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자기조절력 문항 구성

자기조절력	문항번호	문항 수
자기통제력	1,3,4,5,6,8,9,10,11,12	10
충동성감소	2,7,13,14,15,16,17,18,19,20	10
주의집중력	21,22,23,24,25,26,27,28,29,30	10
계		30

자기조절력 검사는 교사가 평소 관찰한 유아의 자기조절력의 발달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연구자는 교사가 미리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검사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자기조절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내용과 검사 실시 방법을 안내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척도의 방향은 부정적인 응답(1점)에서 긍정적인 응답(5점)으로 갈수록 높은 점수를 배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높다고 해석된다. 총점의 범위는 30점에서 120점이다. 따라서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은 높고, 충동성은 낮고, 주의집중력은 높다고 해석되며, 세 영역 총점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높다고 해석된다.

4.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1) 프로그램 구성

육바라밀에 기초한 동화 이야기나누기 활동은 유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육바라밀 덕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동화를 활용한 이야기나누기 활동이다. 최초 50권의 동화 중 유아들의 육바라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동화를 12권 선정하였다. 동화 선정은 유아교육 전문가 1인과 유아교육 전공 석사학위가 있고 교사경력이 높은 현직 교사 1인 그리고 유아교육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스님 1인이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36) 이세원, 「경제동화를 활용한 역할놀이와 토의활동이 유아의 경제기본개념 및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 비교」(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육바라밀에 기초한 동화 이야기나누기 활동목표에서 도서별로 육바라밀 덕목과의 관련성을 나타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육바라밀에 기초한 동화 내용과 이야기 나누기 활동목표

차시	도서명	활동 목표	육바라밀
1	둘이서 똑같이	보시를 생활 속에서 구체화하여 나눔을 통해 나와 가족,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열린 마음을 갖는다.	보시
2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에 대해 알고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한다.	
3	약속식당	유치원에서 지켜야할 규칙과 약속의 종류, 약속을 지켜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안다.	지계
4	찌렁찌렁 아이 시끄러워	장소에 따라 지켜야할 예절과 공공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바른 행동과 바르지 못한 행동을 비교해 본다.	
5	애가 먼저 그랬어요!	어려운 것을 참고 인욕하고 다양한 감정에 대해 알아보고 감정의 변화에 따른 마음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인욕
6	때굴때굴 때쟁이	인욕을 통해 나의 마음을 잘 알고 조절하며 감정의 절제를 직접 경험해본다.	
7	얼음공주 루나	정진이란 첫걸음부터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임을 알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마무리할 때 좋은 결과를 얻는다.	정진
8	코코의 멋진 선물	정진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며 시작한 일은 끈기 있게 마무리 할 줄 안다.	
9	까만 마음이 자꾸 말을 거네	선정을 통해 마음을 집중하여 자신이 잘못된 것에 대해 알고 스스로 고치도록 노력한다.	선정
10	핑계대지마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알아서 반성하고 마음속 나쁜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바꾸려고 노력한다.	
11	까만 친구 메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육바라밀을 바르게 실천한다.	지혜
12	사라진 꿀단지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지혜롭게 육바라밀을 실천하도록 노력한다.	

2) 진행절차

사전검사는 실험 처치가 시작되기 1주일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 26명에게 연구자와 사전교육을 받은 교사 1인이 함께 도덕적 판단력 검사와 자기조절력 검사 실시로 이루어졌다. 도덕적 판단력 검사는 유치원의 오전 자유선택 활동시간에 교실 밖의 별도의 공간에서 개인검사로 실시되어졌고, 자기조절력 검사는 질문지로 구성되어 담임교사에 의해 평가되어졌다.

〈표 6〉 실험집단의 교육 활동안

동화제목	북극곰을 살려 주세요
목 표	• 육바라밀의 보시에 대한 뜻과 의미를 안다. • 지구온난화를 이해하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방법을 안다. • 생명을 존중하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를 실천한다.
교육과정 관련요소	• 의사소통영역 : 듣기 -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말하기 - 생각과 느낌 말하기 • 자연탐구생활 : 과학적 기초능력 기르기 - 생명체와 자연환경 소중하게 여기기
준비물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동화책, 사진자료
활 동	활 동 내 용
이야기 나누기	[도입] 1. 다른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보시에 대해 이해한다. 2. 동화의 내용을 예측해보고 어떤 보시를 베풀어 줄 수 있는지 생각한다.
	[전개] 1. 동화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내용을 듣는다. - 줄거리: 북극에서 살고 있던 아기곰 느티가 얼음이 녹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면서 소동이 벌어지는 내용이 담겨있다. 2. 동화를 듣고 난 후 지구온난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를 한다. - 산타 마을의 눈은 왜 녹았을까? - 동동 섬은 왜 바닷물에 잠겼을까? - 지구가 따뜻해지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 지구가 따뜻해지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 - 북극에 얼음이 모두 녹는다면 어떻게 될까? 3. 북극곰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무외보시와 생명존중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내가 만약 얼음이 녹고 있는 북극에 살고 있는 북극곰이라면 어떻게? - 북극곰을 위해 지구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 내가 북극곰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보시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히 하는 보시에는 무엇이 있을까?
	[마무리] 1. 동화를 읽고 난 후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한다. 2. 건강한 지구를 만들고 북극곰을 도와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일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본다. 3. 지구온난화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북극곰의 마음을 이해하고두려움을 없애는 희망 의 메시지를 적어 에코트리를 만들어본다.

본 실험활동은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6주 동안 주 2회씩 총 12회가 실시되었다. 위
의 〈표 6〉은 실험집단 활동의 예시이다. 실험집단에게는 하루일과 중 이야기나누기 시간
에 육바라밀에 기초한 동화이야기 나누기 활동이 매회 25~30분가량 이루어졌다. 통제
집단에게는 하루 일과에 계획되어 있는 일반적인 동화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이루어졌다.
통제집단 교사가 이끄는 이야기 나누기활동에서도 유아들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이끄는

교사의 태도는 실험집단과 동일하였다. 사후검사는 실험처치가 끝난 후 10월 2일부터 5일까지 1주간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 도구로써 실시되었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대한 연구자간 신뢰도는 .91, .87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로왔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점수로 집단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표본 t-test가 이루어졌고, 이후 실험처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별로 사전·사후검사 간 점수 차이를 규명하는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육바라밀에 기초한 동화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에 미치는 효과

실험집단의 활동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우선 도덕적 판단력 사전검사에서의 실험, 통제집단 간의 점수 차이를 독립표본 t-test로 규명한 결과가 다음의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서 보듯이,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t=-.126, p>.05$), 실험, 통제 두 집단의 도덕적 판단력 수준은 비교적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7> 도덕적 판단력 사전검사에서의 실험, 통제집단 간 차이 검증

요인	n	사전검사		t	P
		M	S.D.		
통제집단	13	1.02	.41	-.126	.750
실험집단	13	1.00	.44		

$p>.05$

이후 육바라밀에 기초한 동화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험처치가 끝난 후, 집단별로 사전, 사후검사 점수에 대하여 실시한 대응표본 t-test 결과가 다음의 <표 8>와 같이 나타났다.

<표 8>의 평균값은 앞에서의 측정도구 채점 설명과 같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이 4점 Likert식으로 평정되어, 이를 기초로 의도성 지수로 환산된 값이다.

〈표 8〉 유아의 전체 도덕적 판단력 사전-사후 검사 차이검증

요인	n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통제집단	13	1.02	.41	1.04	.43	.128	.632
실험집단	13	1.00.	.44	1.50	.47	9.63	.000***

*** $p < .001$

〈표 8〉에서 보듯이, 실험집단은 사전검사($M=1.00$, $SD=.44$)보다 사후검사($M=1.50$, $SD=.47$)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t=9.63$)가 나타났다. 반면 통제집단은 사전검사($M=1.02$, $SD=.41$)와 사후검사($M=1.04$, $SD=.43$)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육바라밀에 기초한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석된다.

도덕적 판단력을 구성하는 네가지 도덕성 척도로 살펴본 사전·사후검사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하위요인별 사전·사후검사 차이검증

도덕적 판단력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GL (좋은의도-적은손실)	통제집단	8.84	1.14	8.30	1.43	1.28	.222
	실험집단	8.76	1.01	6.46	1.19	5.79	.000***
GH (좋은의도-많은손실)	통제집단	8.92	1.38	8.15	1.34	1.47	.165
	실험집단	8.92	1.11	7.53	1.45	4.78	.000***
BL (나쁜의도-적은손실)	통제집단	8.69	1.31	8.38	1.04	.617	.549
	실험집단	8.92	1.25	10.84	1.28	-4.18	.001**
BH (나쁜의도-많은손실)	통제집단	9.46	1.56	9.15	1.14	.588	.568
	실험집단	8.53	1.98	10.76	1.09	-4.90	.001**

** $p < .01$, *** $p < .001$

GL(좋은의도-적은손실)점수는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M=8.76$ 에서 사후검사 $M=6.46$ 으로 낮아졌고, 통제집단의 경우는 사전검사 $M=8.84$ 에서 사후검사 $M=8.30$ 으로 낮아졌으며,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아가 행동의 나쁨 정도를 판단할 때 좋은 의도에서 한 행동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할수록 점수가 낮아진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전검사 점수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크게 낮아진 실험집단의 유아의 경우에는 의도를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실험 처치 효과에 의한 실험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한 결과 실험집단의 유아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79, p<.001$).

GH(좋은의도-많은손실)점수도 마찬가지로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M=8.92$ 에서 사후검사 $M=7.53$ 으로 크게 낮아졌고, 통제집단의 경우도 사전검사 $M=8.92$ 에서 사후검사 $M=8.15$ 으로 조금 낮아졌으며,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실험 처치 효과에 의한 실험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78, p<.001$).

BL(나쁜의도-적은손실)점수는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M=8.92$ 에서 사후검사 $M=10.84$ 로 높아졌고, 통제집단의 경우는 사전검사 $M=8.69$ 에서 사후검사 $M=8.38$ 으로 낮아졌으며,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아가 행동의 나쁨 정도를 판단할 때 나쁜 의도에서 한 행동을 ‘나쁘다’라고 판단할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이에 실험 처치 효과에 의한 실험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18, p<.001$).

BH(나쁜의도-많은손실)점수도 마찬가지로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M=8.53$ 에서 사후검사 $M=10.76$ 로 높아졌고, 통제집단의 경우는 사전검사 $M=9.46$ 에서 사후검사 $M=9.15$ 로 낮아졌으며,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실험 처치 효과에 의한 실험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90, p<.001$).

실험집단 유아들의 GL(좋은의도 - 적은손실)점수와 GH(좋은의도 - 많은손실) 점수는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고, BL(나쁜의도 - 적은손실)점수와 BH(나쁜의도 - 많은손실)점수는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손실의 크기보다 행동의 의도를 고려하여 도덕적 판단을 한 것으로서 육바라밀에 기초한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의도 중심 도덕적 판단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통제집단 유아들의 GL(좋은의도 - 적은손실)점수는 사후검사에서 조금 낮아졌으며, GH(좋은의도 - 많은손실)점수도 조금 낮아졌고, BL(나쁜의도 - 적은손실)점수와 BH(나쁜의도 - 많은손실)점수는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손실의 크기나 행동의 의도 중 어느 한 측면을 고려하여 도덕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아의 의도 중심 도덕적 판단력 향상에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 육바라밀에 기초한 동화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

동화를 활용한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의 표들로 제시되어 있다. 우선 자기조절력 사전검사에서의 실험, 통제 집단 간의 점수 차이를

독립표본 t-test로 규명한 결과가 다음의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에서 보듯이,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t=.722, p>.05$), 실험 처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자기조절력 사전검사에서의 실험, 통제 두 집단은 비교적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0> 자기조절력 사전검사에서의 실험, 통제집단 간 차이검증

요인	<i>n</i>	<i>M</i>	<i>SD</i>	<i>t</i>	<i>P</i>
통제집단	13	3.17	.31	.722	.477
실험집단	13	3.09	.29		

$p>.05$

사전검사에서의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인한 후, 동화 이야기 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처치가 끝난 후 두 집단 모두에게 사전, 사후검사 점수를 대상으로 한 대응표본 t-test를 수행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유아의 자기조절력 전체와 하위요인 사전-사후검사 차이검증

자기조절력		사전검사		사후검사		<i>t</i>	<i>P</i>
		<i>M</i>	<i>SD</i>	<i>M</i>	<i>SD</i>		
자기통제	통제집단	3.27	.37	3.34	.82	-.27	.787
	실험집단	3.05	4.15	3.74	.35	-5.57	.000***
충동성감소	통제집단	3.03	.39	3.11	.55	-.60	.557
	실험집단	3.19	.34	3.62	.28	-6.90	.000***
주의집중력	통제집단	3.22	.39	3.30	.64	-.51	.619
	실험집단	3.03	.29	3.53	.39	-5.84	.000***
자기조절력 전체	통제집단	3.17	.31	3.25	.64	-.477	.643
	실험집단	3.09	.29	3.63	.32	-7.45	.000***

*** $p<.001$

자기통제 점수는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M=3.05$ 에서 사후검사 $M=3.74$ 로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5.57, p<.000$).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충동성 감소 점수는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M=3.19$ 에서 사후검사 $M=3.62$ 로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6.90, p<.000$).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았다. 주의집중력 점수도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M=3.03$ 에서 사후검사 $M=3.53$ 으로 높아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5.84, p<.000$).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불교의 실천덕목인 육바라밀에 기초한 동화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자기조절력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바라밀에 기초한 동화이야기나누기 활동이 도덕적 판단력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활동은 유아의 과실, 흠치기, 거짓말의 세 가지 도덕성 영역에 따른 4가지 도덕성 척도 모두에서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의 하나인 육바라밀이 유아들의 도덕적 판단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활동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자타카에 내포되어 있는 육바라밀의 정신이 유아들을 위한 소그룹 토의활동에서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을 높여주었다고 밝힌 선행연구 박미정³⁷⁾의 결과와 유사하다. 그 외에도 불교 동화를 통한 통합적 도덕교육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을 향상시킨다고 밝힌 정도진³⁸⁾(2003)의 연구결과와 동화를 통한 통합적 도덕교육이 유아의 도덕성을 높여준다고 밝힌 선행연구 결과(안연경, 2001)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

실제로 동화 이야기 나누기 활동은 유아들에게 교육적이며 발달에 적합한 동화를 적절한 전달방법으로 제시함으로써 유아들의 이해력, 언어발달, 논리적 사고, 주의력, 추리력, 창의적인 사고³⁹⁾ 등을 기를 수 있다⁴⁰⁾고 알려져 있다. 더욱이 동화가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교육적 가치 외에도 육바라밀이라는 불교 수행의 가르침이 동화 활동에 더해지게 되면 유아들은 동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정이입과, 몰입, 흥미를 갖고 동화의 주요 인물들을 투사하면서, 자신의 도덕적 판단력을 발달시킨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이란 도덕적 판단을 요하는 갈등 상황 즉, 유아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새로운 사고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나 불균형 상태에서 보다 인지적·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판단을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도덕적 판단력이 요구되는 상황을 동화라는 가상 상황에서 자주 경험하는 유아들은 이전보다 좀 더 진전된 사고 발달과 인지적 발달을 이루게 될 것이다. 관련선행연구⁴¹⁾에서도 유아들의

37) 박미정, 「자타카를 통한 소그룹 토의 활동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및 대인문제해결사고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38) 정도진, 「불교 동화를 통한 통합적 도덕교육이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9) Wright, C., & Bacigalupa, C., Black, T., & Burton, M., "Windows into Children's Thinking: A Guide to Storytelling and Dramatiz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35, 2008, p. 363.

40) 고문숙 외, 앞의 책. 294-295쪽.

41) Malti, T., Gummerum, M., Keller, M., & Buchman, M., "Children's Moral Motivation, Sy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80(2), 2009, 442.

도덕적 동기와 공감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밝힘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육바라밀은 불교의 신행적인 가치이다. 단순한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신행을 위해 구체화된 행동지침이다. 예를 들면 보시바라밀이란 보시를 행하면서도 보시라는 선행에 집착하지 않고 공덕의 대가도 바라지 않는 무주상(無住相)의 보시를 말한다. 인욕바라밀은 인내(忍耐)의 완성이므로 모든 법의 진리를 깨달아 마음을 편안히 안주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육바라밀에 기초한 동화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자기조절력의 하위요인들인 자기통제력, 충동성 감소, 주의집중력에서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불교 신행덕목인 육바라밀이 유아들의 자기조절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우선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이 유아들의 자기조절력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한 관련연구들⁴²⁾을 지지한다. 김시내⁴³⁾는 그림책을 활용한 민주시민교육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고, 박미정⁴⁴⁾은 그림책을 활용한 명상활동이 자기조절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양유진⁴⁵⁾은 그림동화책을 활용한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자기조절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다. 이처럼 활동에서 사용한 교육매체나 교육방법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지만 모두 그림책이나 동화를 이용한 교육활동이라는 점에서 이들 연구결과는 모두 동화의 교육적 가치를 폭넓게 지지한다고 하겠다.

다만 선행연구가 일반적인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활용한 교육활동이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육바라밀이라는 불교의 실천덕목과 연관되는 교육주제를 담고 있는 동화를 선정하여 시행된 교육활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동화가 지니는 교육적 가치와 불교의 육바라밀이라는 실천적 덕목이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통해 통합됨으로써 유아들에게는 더욱 동화가 포함하고 있는 도덕적 가치와 이를 이해하는 판단력 그리고 등장인물들에서 시사되는 자기조절력의 발달 중요성이 유아들에게 용이하게 이해되는 활동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옥승⁴⁶⁾은 유아기의 자기조절을 목표지향적인 인지조절과 정서조절의 복합적인 심리과정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에 기초하여 육바라밀에 기초한 동화 이야기 나누기 활동의 효과를 설명하면, 유아들

42) 김시내, 「그림책을 활용한 민주시민교육이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박미정, 「그림책을 활용한 명상활동이 유아의 공격적 행동과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양유진,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나누기가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43) 김시내, 위의 글.

44) 박미정, 위의 글.

45) 양유진, 위의 글.

46) 양옥승, 앞의 글, 480쪽.

은 보다 친근하게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보시’와 약속과 규칙을 통해 질서를 지키면서 ‘지계’ 정신을 배우고, 참고 인내하는 마음속에서 ‘인욕’을 배우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진’을 배우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이 아닌 사려 깊은 사고를 통해 ‘선정’을 그리고 슬기로운 ‘지혜’의 정신을 터득하게 된다고 보겠다. 이처럼 동화 속 갈등상황에서의 등장인물들과 같이, 유아들은 현실에서도 다양한 자기의 감정과 정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조절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험을 실천할 수 있었다고 해석된다.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잡념이 없다. 다만 자신의 흥미에 집중하며 주변을 세세히 관찰한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어린이들을 위해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불교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아이들의 심성계발과 인성 교육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도 일찍이 불교를 일컬어 ‘우주과학’이라고 찬탄한 바가 있다.⁴⁷⁾ 따라서 불교의 수승한 핵심 사상이 유아기 아동에게 적합한 다양한 교육방법과 교육매체로써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을 기초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경북에 소재한 불교 종립 대학교 부속유치원의 만 4세 유아 26명이고, 단 12회에 걸쳐 실험이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대표성 있는 표집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둘째, 실험 기간 중 유아들의 도덕적 판단력과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외변인들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연구적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중요한 가외변인들을 통제하고 보다 과학적인 절차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육바라밀 외에도 불교의 여러 수행방법을 적용한 교육활동의 효과가 검증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은 몇가지 연구적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연구 의의를 있다고 믿어진다.

우선, 육바라밀과 같은 불교의 실천적 덕목에 기초한 동화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통해서 유아들은 현실적인 갈등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보편타당한 가치와 도덕적 판단력을 적용시킬 수 있는 힘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화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교육적 기능과 불교사상이 결합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자타카와 같은 불전설화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동화나 동시, 동극을 통해서도 불교의 실천적 덕목을 이해시키고 실천하도록 이끌어주는 교육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47) 김성철, 앞의 책. 90-91쪽.

참고문헌

- 고문숙 · 김은심 · 유향선 · 임영심 · 황정숙, 『누리과정에 기초한 유아교과교육론』 서울: 창지사, 2013.
- 교육부, 『인성지수 개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3, 미간행.
- 권대원, 『유아교육과정』, 서울: 양서원, 2008.
- 김성철, 『김성철 교수의 불교하는 사람은.....』, 서울: 불교시대사, 2012.
- 김순란 · 이종한, 「교사교육 후에 실시한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미음 이론 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63, 청주: 한국 영유아보육학회, 2010.
- 김시내, 「그림책을 활용한 민주시민교육이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영옥 · 장명림 · 유희정, 「유아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열린유아교육학회, 2009.
- 김은설 · 최은영 · 조아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2013.
- 김재철, 「지적 호기심에 따라 법률적 탐구수업과 설명식 수업이 학업 성취 및 도덕적 판단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혜순, 「종교성과 신행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종교교육학연구』 제 29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 _____,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방향 탐색」 『한국불교상담학회지』5(1), 경주: 한국불교상담학회, 2013.
- 박미정, 「그림책을 활용한 명상활동이 유아의 공격적 행동과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_____, 「자타카를 통한 소그룹 토의 활동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및 대인문제해결사고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박범석, 「교육의 종교성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박상희, 『그림책 중심의 유아 독서 교육의 실제』, (서울: 태영출판사, 2008).
- 박찬옥, 「유아교육에서 인성 개발 방안」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0.
- 백상수 · 황윤세, 「유아 영재성 관련 변인의 구조분석 또래유능성, 자기조절력, 놀이특성」 『한국영유아보육학』 63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0.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교재편찬위원회, 『불교사상의 이해』, 경주: 불교 시대사, 1997.
- 송승진, 「전래동화의 도덕적 갈등상황에 대한 토의활동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안연경, 「동화를 통한 통합적 도덕교육활동이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양옥승, 『유아 때부터 시작하는 자유선택교육』, 서울: 학지사, 2004.
- _____, 「유아 자기조절의 의미: 두뇌발달의 관점」 『유아교육연구』 31(6), 유아교육학회, 2011.
- 양유진,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나누기가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

-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유상덕, 「영성의 보고로부터 배우는 근대 교육의 성찰」 『종교성,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학지사, 2007.
- 이기우, 「자기중심적-타인중심적 사고와 도덕적 판단력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이세원, 「경제동화를 활용한 역할놀이와 토의활동이 유아의 경제기본개념 및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 비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윤정, 박성현, 「게슈탈트 예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과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게슈탈트치료연구』 Vol. 1(2), 서울: 한국게슈탈트치료학회, 2011,
- 장택수, 「가치갈등과 시뮬레이션 게임 교수 방법이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정도진, 「불교 동화를 통한 통합적 도덕교육이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조복희 · 박혜경 · 김혜순 · 연미희 · 이영환 · 장혜자, 『유아발달』, 서울:교육과학사, 2014.
- 황옥자, 「유아기 심성발달에 관한 불교의 역할 및 방향모색」 『종교교육학연구』 13,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Bodrova, A. L., & Leong, D. G., *Tool of mind: A Vygotskian Approach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96.
- Bronson, M. B. *Self-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Nature and Nurture*, N. Y : The Guilford Press, 2000.
- Brownell, C. A., & Kopp, C. B. (Ed), *Self-Regulation,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the Toddler Years* (pp. 261-344),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07.
- Cameron, C. E, & Morrison, F. J. “Teacher Active Orienting predicts Preschoolers’ Academic and Self-Regulatory Skill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2(4), 2011.
- Cohen, A. B., Hall, D. E., Koenig, H. G., & Meador, K. G., “Social Versus Individual Motivation: Implications for Normative Definition of Religious Orient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9(1), 2005.
- Eisenberg, N., Guthrie, I. K., Fabes, R. A., Reiser, M., Murphy, B. C., Holgren, R., Maszk, P. & Losoya, S.,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Resiliency and Competent Social Functioning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8(2), 1997.
- Eisenberg, N., Spinard, T. L. & Morris, A. S., “Regulation, Resiliency, and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Self and identity*, 1, 2002.
- Hebble, P. W., “The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s Judgment of Intent”, *Child Development*, 42(6), 1971, 1203-1215.
- Kendall, P. C. & Wilcox, L. E., “Self-Control in Children : Developmental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Psychology*, 4(4). 1979.
- Kohlberg, L., *Development of Moral Character and Moral Ideology; Review of child*

- Development Research*, Vol. I, ed, M. L. Hoffman and L. W. Hoffman. N.Y :
Russell Sage Foundation, 1964.
- Kim, H. S., “Korean Seon Buddhism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24, 2015.
- Lengua, L J., “The Contribution of Emotionality and Self-Regulation to the Understanding of Children’s Response to Multiple Risk”, *Child Development*, 73(1), 2002.
- Malti, T., Gummerum, M., Keller, M., & Buchman, M., “Children’s Moral Motivation, Sy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80(2), 2009.
- Olson, S. L. & Hoza, R., “Preschool Developmental Antecedents of Conduct Problems in Children Beginning School”,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6, 1993.
- Ostafin, B. D. Chawla, N., Bowen, S., Dillworth, T. M., Witkiewitz, K., “Intensive Mindfulness Training and the Reduction of Psychological Distress: A Preliminary Study”,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13(3), 2006.
- Piaget, J.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5.
- Sethi, E. K., Mischel, W., Aber, J. L., Shoda, Y., & Rodriguez, M. L., “The Role of Strategic Attention Deployment in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Predicting Preschoolers’ Delay of Gratification from Mother Toddler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6(6), 2000.
- Smith, D. R., Raver, C. C., & Hayes, T., “Preliminary Construct and Concurrent Validity of the Preschool Self-Regulation Assessment (PSRA) for Field-based Research”,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2(2), 2007.
- Tremmel, R., “Zen and the Art of Reflective Practice in Teacher Education”, *Harvard Educational Review*, 63(1), 1993.
- Wright, C., & Bacigalupa, C., Black, T., & Burton, M., “Windows into Children’s Thinking: A Guide to Storytelling and Dramatiz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35, 2008.
- Wulfert, E., Block, J. A., Santa Ana, E., Rodriguez, M. L., & Coleman, M. “Delay of Gratification: Impulsive Choices and Problem Behaviors in Early and Late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70, 2002.
- Zimmerman, C. R., “Self-Regulation involves more than Meta-Cogni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Education Psychologist*, 81, 1995.

원고접수일: 2015년 6월 15일 심사일: 2015년 6월 30일 게재확정일: 2015년 7월 15일

연구자소개: 유지현(고진)

- ① 전공: 교육학 / 소속: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유아교육, 인성교육
- ③ E-mail: thinkfree@hanmail.net

연구자소개: 김혜순

- ① 전공: 아동학 / 소속: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유아교육과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유아교육, 아동발달
 - ③ 주요논저: 「종교성과 신행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개인적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종교성의 매개효과」, 「Korean Seon Buddhism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 ④ E-mail: heidi-77@hanmail.net
-

Abstract

Effects of the Story-Discussion Activity about Fairy Tale Centered on The Six Pāramitās on the Preschooler's Moral Judgment and Self-Regulation

Yoo, Ji-Hyun · Kim, Hye-Soon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story-discussion activity about fairy tales that centered on The Six Pāramitās on the preschooler's moral judgment and self-regul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by experimental research desig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6 preschoolers of age 4 at the D University Buddhist Kindergarten in G-si of Gyeongsangbuk-Do. Moral Judgment Inventory(Song Seung-jin, 2010) and Self-Regulation Inventory(Lee Sei-won, 2006) were used for this study. For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analysis and t-test were conducted by using SPSS Win 18.0.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story-discussion activities about fairy tales that centered on The Six Pāramitās was significant on the moral judgment ability of the preschoolers. Second, the effects of story-discussion activities about fairy tales which centered on The Six Pāramitās was significant on the self-regulation ability of the preschoolers.

Key words: fairy tales, story-discussion activity, moral judgment, self-regulation, The Six Pāramitās